

금구면, 지역주민 위한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금구 느티나무문화홀에서 음악 동호회 전주 뮤직Q 재능기부

'금구 느티나무문화홀'에서 지난 25일 여름밤 열대야를 식히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금구초등학교 입구에 약 50여평 규모로 자리하고 있는 '금구 느티나무문화홀'은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의 우거진 녹음을 배경으로 주민을 위한 야외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는 사방마을이장(송장열)이 활동하고 있는 음악 동호회 전주 뮤직Q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이 음악회를 주도한 사방마을 송장열 이장은 "무더운 여름밤에 금구면민들의 피로를 말끔히 없애주는 청량제같은 음악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화려하고 거창한 공연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가족, 이웃들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더위를 피해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기타, 색소폰, 드럼 등의 연주와 함께 7~80년대 추억의 노래를 불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노래교실에서 도 뜻깊은 재능기부에 동참하여 오키리나 연주와 노래를 주민들에게 선물해 소박하지만 풍성한 음악회가 진행됐다.



'금구 느티나무문화홀'에서 지난 25일 여름밤 열대야를 식히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작은 음악회에 참석한 한 마을 주민은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는 공연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주 뮤직Q의 김민석 단장은 "마을 주민들이 즐

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재능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금구면민들에게 오히려 '행복'을 선물 받은 것 같다"며 음악회를 함께 즐겨준 금구면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군수배 족구대회 · 사회인 야구대회 성료

임실군수배 족구 및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실군은 제14회 임실군수배 족구대회와 제5회 임실군수배 사회인 야구대회가 지난 24일 임실공설운동장 족구장과 섬진강체육공원에서 각각 개최됐다고 26일 밝혔다. 열네번째로 열린 임실군수배 족구대회는 당일 오전 현장 접수하여 10개팀 100여명의 족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실력향상과 동호인 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관내 1부에서 우승은 신평A클럽이, 준우승은 강진A클럽이 차지했고 관내 2부 우승은 관촌클럽이, 준우승은 35사단B클럽이 거머쥐었다. 다섯 번째 임실군수배 사회인 야구대회는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이 되며 12개팀 200여명이 참가해 리그전을 펼쳐 기량 향상과 동호인 교류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회식 말미에는 임실군체육회장인 심민군수와 임실군의회 김왕중 부의장이 시구와 시타를 해 관중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경찰,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26일 오전 한빛 중 앞에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장, 남원 교육장, 율리초·한빛중·국악예술고·서진여고 교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I say! you say! Love yourself' 슬로건 아래 학생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적·언어적·사이버·성폭력에 대해 회복적 사고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도록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 상대 사이버 사기(도박), 성폭력 예방(불법촬영) 및 사이버 언어폭력에도 학생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 점을 홍보하고, 대처요령 및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배구대회 성황리

제10회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배구대회가 최근 진안문체체육회관과 7개 보조구장에서 열린 가운데 막을 내렸다. 진안군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 대회에 103개 팀, 2,200여명에 달하는 전국 배구 동호인이 참가해 홍삼의 고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틀간의 열전 끝에 남·녀배구 동호회 전국 최강기자가 가려졌다. 남자부는 ▲2부 포항 ninevics ▲3부(마이산부) 전주V9 ▲3부(홍삼부) 포항 ninevics ▲장년부 광주 배사모가 최정상에 올랐고, 여자부 ▲3부(마이산부) 전주남 클럽 ▲3부(홍삼부) 전주9V 클럽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진안 마이산클럽(감독 설창국)은 남자 장년부에서 3위에 올라 개최지의 자력을 보였다. 배구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배구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50여개에 달하는 동호인 배구대회가 열리고 있어 동호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꾸준히 참가클럽과 선수들이 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심정지 환자 살린 익산소방서 여성이용소방대원 '화제'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왕궁여성이용소방대원이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 낸 것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40분경 황등면에서 A씨가 인도에 쓰러졌다. 때마침 현장에 왕궁여성이용소방대 오경선 대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경선 대원은 심정지임을 직감하고 즉시 119신고와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 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5분뒤 도착한 모현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AED심장충격기를 부착과 산소투여 등을 실시하여 다행히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회복돼 원관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활약한 오경선 대원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소 의용소방대 정기교육훈련을 통해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오경선 대원은 지난 7월 도 전문의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후 8월부터 '수호천사'로 활약하기 시작한 대원이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무엇을 먼저 해야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올바른 대처로 한 생명을 살린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용기있는 행동에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관내 여인숙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9일 새벽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여인숙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 관내에는 여인숙 26개소가 있으며,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건축물 규모, 용도 등에 따른 소방시설 등 설치 적정여부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및 압력 적정여부 ▲실내 부탄가스 사용여부 ▲화기 취급 상황 안전성 확보여부 ▲소방차량 진입로 등 소방활동 장애여부 등이며, 이와 병행해 관계자 비상 연락망 확보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건민 예방안전팀장은 "대부분 여인숙의 경우 소방차 접근이 곤란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방범창 등이 설치된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심각하다며, 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반부패 3차 대토론회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26일 적삼면 사무소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반부패 3차 대토론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경찰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내부 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반부패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열렸다. 또한 경찰 내부의 자정 의지를 이어 나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유착비리 예방을 위한 세계적 대책 추진을 당부하며,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성을 더욱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